

#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 제 19 장



프랑스 최남단 지방의 중심부 이자 좁은 산등성이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 큰 풀들이 갈라지자 달빛이 비치는 공터로 토끼 한 마리가 강충강충 뛰어 들어왔다. 경계심 많은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찔룩거리며 탁 트인 언덕을 살폈다. 그리고 앞으로 살금살금 나아가던 토끼는 그것은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렸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유리처럼 투명한 검은 눈 하나를 하늘로 고정시켰다. 돌처럼 굳은 동물은 마치 별빛을 배경으로 떠다니는 한 점 같은 작은 비행 물체. 토끼는 마치 맹금류처럼 보이는 그 아래에서 꿈쩍 않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높이 솟아오른 물체는 펼쳐진 날개를 제외하고는 어떤 새와도 닮지 않았고, 예리한 눈이라면 그것이 날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챌 수 있었다. 깜짝 놀란 토끼는 갑자기 몸을 돌려 방금 전에 나타났던 긴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덩불과 짙은 그림자의 안전한 곳에서, 유령 같은 초록빛 손이 덩불을 헤치고 나와 몸부림치는 토끼를 낚아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풀이 무성한 언덕에는 새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능선 위 높이 활공하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배경으로 나사로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날갯짓에 맞춰 바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프랑스 최남단 해안선, 나사로의 높은 전망대에서 그는 달빛에 비친 땅들이 굽은 지평선 너머로 마치 창조의 모든 면모를 천천히 펼쳐내는 장엄한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왼쪽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낮은 언덕들이 줄 지어 지구의 동쪽 경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유황빛 초승달 아래로는 솟아오른 지형이 흐릿한 서쪽 지평선과 어우러져 마치 수은처럼 녹아내리는 듯하며 희뿌연 하늘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다.

라자로는 이미 오래전에 굽이굽이 흐르는 론 강을 떠나, 황량한 언덕과 등성등성한 숲이 펼쳐진 남쪽 하늘을 날고 있었다.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시냇물이 온 땅을 가르며 흐르고 있었는데, 마치 검고 날카로운 칼 자국이 땅을 훼손하는 듯했다. 강둑을 따라 초가지붕을 엮은 작은 집들이 무리지어 시야에 들어왔는데, 이는 소박한 어촌 마을의 모습을 짐작케 했다. 그 사이로 시골길은 흙길처럼 뻗어 나가 그늘진 숲과 산기슭 계곡 속으로 사라졌다.

발아래 구불구불한 길과 시냇물은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위태로워 보였지만, 나사로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맞바람과 하강 기류를 거스르며 의도적인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는 곧고 좁은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발아래 펼쳐진 드넓은 대지를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날갯짓 소리 속에서 나사로는 마치 눈을 가린 채 날아가는 듯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내면의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천사들만이 그토록 무거운 그의 마음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는지, 별들 주위를 맴돌며 산산조각 난 자신의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적이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자로의 마음은 지나간 날들의 아련한 기억들로 어지러웠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오를 때마다, 마치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여 그가 순수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두 덮어버리는 듯했다. 안락한 율타리가 사라진 지금,

지하 묘지에서, 터널 작업도 없고, 이반과 오디노의 위로도 없고, 심지어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의 잔소리도 없이, 걱정스러운 가면도 벗은 채, 라자로는 눈물을 흘렸다. 한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던 불안한 마음이 마침내 가슴속에서 강하게 꿈틀거리게 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끊임없는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깨어나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주의를 사로잡는 비명 같은 의식. 실제로, 그 성가신 속삭임은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커져 갔고, 라자로는 수도원을 떠나야 했던 그 끔찍한 밤에 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정말로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목소리는 오직 그만의 것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적이고 살인적인 어부, 탐욕스럽고 서로 다투던 영주 달시쿠르와 휴곤, 차갑고 혐오스러운 본 선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의 본보기이자 그 이상이었던, 철저히 불경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라자루스에게 그 쓰라린 기억들은, 그가 이전 지하 묘지의 안락한 공간에서 쫓겨나기 전 누렸던 모든 완벽하고 따뜻한 기억들, 이전의 완벽했던 세상에 대한 모든 즐겁고 순진한 꿈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슬픔이 때때로 영성을 굴복시킬지라도, 이성엔 결국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준다. 라자로는 괴로운 마음을 달고 더 의미 있는 생각과 계산에 몰두했다. 그는 남 프랑스 상공을 날아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었다. 한때 순진 하게도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라고 여겼던 것, 즉 어딘가로 날아가 수도사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 꽤 현실적인 일이었다. 그는 살바티노 수도사와 함께 수도원으로 돌아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했다. 아아, 선장이 기사 복장 속에 숨겨진 그로테스크한 본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건 하나로 그는 수도원 수도사들이 자신을 수도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성직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그를 수도원의 신뢰받는 지하 묘지 종자, 나사로로 칭송하는 한편, 추하고 불경스러운 날개 달린 짐승으로 매도했다. 그는 자신 이 기도하는 성소가 아닌, 성소 꼭대기 돌 위에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선택지를 다시 계산해 보았지만, 결국 변함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수도사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선한 점이 남게 된다면,' 그는 덧붙였다. '아마도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의 차이점을 초월하여 그를 짐승보다는 인간에 가깝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는 어떤 배려도 이 순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은 구불구불한 대지를 가로질러 흘러갔고, 열린 문석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무겁게 놓인 채, 나사로는 남프랑스 상공을 계속 나아갔다. 그의 날개에서 맺힌 땀방울이 달빛에 반짝였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땅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자신의 방향과 속도를 고수했다. 거대한 박쥐처럼 그는 나무 꼭대기 위를 쏜살같이 날아오르며 날갯짓으로 나뭇잎들을 휘저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날갯짓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날갯짓을 반복 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때, 갈매기 떼가 그의 곁에 모여들었다. 쉬고 있던 더 많은 갈매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그를 쫓기 시작했다. 새들은 점점 더 큰 무리를 이루었고, 마침내 수백 마리가 되어 나사로를 거의 완전히 에워쌌다.

그들을 따돌리려 더 높이 날아올랐지만, 그들은 쫓아왔다. 그는 급강하하고, 왼쪽으로 선회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공중 기동으로 정확하게 반응했다. 그는 수평을 유지하며 수평선을 찾았지만, 휘몰아치는 꼬리 깃털의 하얀 벽만 보였다. 그리고 그의 발아래, 땅은 하얀 날개의 출렁이는 바다에 잠겨 있었다.

나사로는 그들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당장 꺼져!”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마치 그의 무례한 명령이 집단적인 항의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비켜!" 그가 소리쳤다. 갈매기들은 까악까악 울며 더욱 가까이 다가와 마치 어미 갈매기에게 매달린 새끼 갈매기 백 마리처럼 그를 에워쌌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양떼는 그저 재잘거리며 대답했을 뿐이다.

나는 새가 아니야!

갈매기들이 한목소리로 불평했다.

"아니에요!"

그들은 날카로운 반박을 쏟아냈다.

라자로는 씩씩거리며 그들에게 항복했다. 비록 자신이 날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 많은 새들 사이를 헤매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게다가 그 무리는 공간 감각이 뛰어난 듯 보였다. 날갯짓을 방해하는 새가 한 마리도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날갯짓조차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라자로는 그들의 멍하니 응시하는 듯한 검은 눈에 이끌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야성적인 강렬함을 띤 듯했다. 그는 그 눈을 깊이 응시했다. 예전에 산입구의 개들을 들여다봤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 갈매기들 속의 공허함이 나사로를 웃게 만든 것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갈매기들은 그의 웃음소리에 맞춰 노래했다.

나사로가 꺾꺾 웃자 그들도 그와 함께 깔깔 웃었다. 그가 더 크게 웃을수록, 그들도 더 시끄럽게 웃었다. 그들은 대답했고, 마침내 라자로는 경련과 눈물에 휩싸였다. 사실 그는 자신의 웃음의 근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즐겼다. 갈매기들의 노골적인 시선은

그 눈은 마운틴 마우스의 박쥐 눈처럼 크고 멍했으며, 클로디우스 수사가 수도원 지하 묘지에서 쫓던 쥐의 입과 똑 같았고, 어쩌면 나사로가 빨래통을 수사의 샌들에 쏟아부었을 때 수사 자신이 지었던 그 멍한 표정을 그대로 반영했을지도 모른다. 기억 속의 모습이든 현실의 모습이든, 그 시선들은 모두 똑같았다.

그 모습은 라자루스에게 결정론과 무지라는,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부조화스러운 상태를 전달하는 듯했다. 만약 그가 처음에 그들의 차갑고 넓은 시선에서 유머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텅 비고 타오르는 눈빛의 무리 속에서 날아다니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갈매기 떼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갈매기들은 결코 반복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산어귀의 박쥐들에게만 털어놓았던 진실들을 새들과 공유했다. 실제로 그들은 나사로에게 매우 호기심을 보였고 호의적이었으며, 모두 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끊임없는 연설과 함께.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일제히 껍뻍거리고, 까악거리고, 혹은 웅알거리는 소리를 내어 공통된 의견이나 반론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침내 갈매기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지겨워졌는지 방향을 바꾸어 떠났다. 무리는 점점 흩어졌고, 밤하늘의 빛이 휘몰아치는 날갯짓을 비추었다. 더 많은 갈매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사로의 발치에 펼쳐진 흩더미가 드러났다.

남아 있던 갈매기 떼는 갑자기 흩어져 버렸고, 라자로는 홀로 남게 되었다. 눈앞의 갈매기 떼가 사라지자, 그의 눈은 전에 기억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남쪽 지평선을 발견했다. 그 새로운 모습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공포의 풍경과 같았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날개를 마구 퍼덕이며 갑자기 멈춰 섰다. 그는 허공을 걷는 듯했지만,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생명의 피가 혈관에서 빠져나간 듯, 뼈가 돌처럼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 불안한 순간, 라자로는 땅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불가사의한 광경의 거대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검은 유리판에 덮인 듯 보였고, 세상은 마치 완전히 사라져 버린 듯했다. 끝없이 펼쳐진 공허함은 오직 노아만이 알 수 있었을 경외로운 광경이었다.

수도원 지도와 자신이 날아온 거리를 되짚어보며 라자루스는 자신이 레온 만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만이 마치 바다의 사자처럼 거대하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나선형으로 급강하하여, 깃털 달린 친구들을 따라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해안 바위선으로 향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새들 사이로 내려앉아 넓고 낮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갈매기들은 불평하며 날갯짓을 했다. 그들은 그의 부츠를 쪼아냈는데, 아마도 그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눈이 흰 물고기의 좌초된 사체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사로는 쪼그리고 앉아 지친 팔을 무릎 위에 걸쳤다. 땀방울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뒤로 흩날렸다. 날개는 축 늘어져 뒤로 펴려있고, 그는 마치 더위에 지친 새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돌로 된 평평한 지면에 앉아 그는 마음을 추스렸다. 바위 사이로 밀려드는 파도가 짠물 안개를 흩뿌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칠 때 마다 바닷물 거품이 솟아오르고 가라앉는 물가를 유심히 살폈다. 근처에는 게 껍데기 조각이 바위 틈새에 끼어 흔들리는 유목 위에 얹혀 있었다. 바위에는 뾰뾰한 해조류 줄기가 물살에 휩쓸려 일렁였다. 나사로 옆에서는 갈매기들이 마침내 관심을 돌려 게 사체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만의 시원한 바람이 그의 젖은 날개를 말려주자, 나사로는 눈을 감았다.

새롭게 경험한 소리와 냄새는 영원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대양.

그의 마음속에서 한때 끓어오르던 걱정은 점차 커져 발밑의 검은 파도 소리와 함께 요동치는 끊임없는 항의의 목소리로 변했다. 그는 수도원 지도를 다시 확인하며 수도사를 데리러 가는 여정에서 레온 만을 저녁에 건너 코르시카 섬에 도착하여 다시 햇빛을 피할 계획이었음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 거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새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하고 거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무한대로 뻗어 있는 듯했고, 그 위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사실, 그 끊임없는 항의의 목소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라자루스는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것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의존해 온 비행이라는 위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목소리는 나사로가 밤새도록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도 수영을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라자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무릎을 꿇고 발뒤꿈치로 주저앉았다. 그는 파도 너머로 어두운 하늘과 하나로 합쳐진 듯한 검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는 마치 끝이 없는 심연처럼 보였고, 그는 구름조차도 그토록 광활한 심연을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선을 남서쪽 하늘로 돌렸다. 저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일어서서 갈매기들에게 쓸쓸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그의 팔을 펼쳤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라 한 바퀴를 선회한 후, 동쪽으로 향하며 석양에 등을 돌렸다.

달.

그날 저녁 남은 시간과 이른 아침까지, 라자로는 남쪽 길을 따라갔다.

프랑스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다. 수도원 지도를 머릿속에 확실히 새긴 그는 그 지도를 길잡이 삼아 동쪽 항구 도시 마르세유로 향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측풍이 그를 밀어내려는 듯했지만, 그는 바다를 오른쪽에, 육지를 왼쪽에 두고 항해했다.

그는 불길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나사로에게 바다는 마치 지옥의 심연, 굶주린 거대한 블랙홀처럼 보였고, 그를 조롱하며 감히 건너보라고 부추기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측풍은 약해지다가 잦아들었고, 곧이어 짙 내풍이 내륙으로 불어와 그 바람을 상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센 바람 때문에 그의 날개는 손상되었고, 나사로는 따스한 햇살을 피할 만한 적당한 곳을 찾아 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라자로는 한적한 항구 마을에 내려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초가지붕 위로 길이 점차 넓어지도록 나아가다가 마을의 더 외딴 동쪽 끝, 넓고 바위투성이인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옛 성당의 폐허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붕이 없는 높은 구조물의 잔해만 남아 있었고, 그윽하고 부분적으로 무너진 벽 사이에는 돌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겉보기에 죽은 듯한 예배당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 무너져가는 성벽 안에, 마치 새로 지은 교회처럼 보이는 기묘한 구조물이 바닥 돌의 일부 위에 서 있었다. 새 교회는 고대 성당과 공유하는 돌 외벽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겉보기에 작은 나무 조각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마치 겨울에 시들어버린 꽃의 품속에 봄을 맞이할 씨앗을 상징적으로 닮은 듯했다. 그리고 넓은 언덕 동쪽을 뒤덮은 드넓은 묘지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뼈를 묻고 있는 개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나사로는 폐허 주변이 거의 죽은 땅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너진 폐허의 벽 안쪽에 발을 디디고 잡초가 무성한 돌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라자로는 움찔하며 낡은 날개를 조심스럽게 접은 후 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허름한 교회에 채 다가가기도 전에 그는 높고 좁은 창문들을 보고는 이 건물이 자신이 원하는 은신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자로는 돌아서서 오래된 벽의 틈새로 발을 내디뎠다.

그런 다음, 폐허 밖으로 나와 그는 무너진 돌담과 키 큰 잡초 사이를 헤치며 벽을 따라 걸어갔다. 마침내 벽의 바깥쪽 모퉁이를 돌아 잡초 속에 덩굴로 뒤덮인 크고 좁은 저장통을 발견했다. 저장통의 높은 뒷면은...

덧붙여 지은 상자 하나가 고대 사원 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상자의 낮은 앞쪽 면은 뻣뻣하게 들어선 낡은 묘비들이 쌓인 언덕을 향하고 있었다. 라자로는 잡초를 걷어내고 상자의 낮은 뚜껑을 들어 올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러진 도구 손잡이 몇 개와 썩어가는 삼베 자루 몇 개,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진흙 덩어리들을 제외하면, 내부는 그가 짧게 머물기에 충분히 넓어 보였다. 그는 상자 안으로 몸을 밀어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는 소지품을 정리하고 눈을 감고 새로운 날의 여명을 맞이했다. 그리고 시간은 그의 꿈의 세계로 돌아갔다.

실제로 그 상자는 견고한 벽과 평평한 뚜껑으로 잘 만들어져 나사로를 눈부신 햇빛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행운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처럼, 나사로를 살려준 바로 그 상자도 쉽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관처럼. 만약 다음 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아침 햇살이 관을 뜨겁게 달구었고, 나사로는 잠에서 깨어나 당장 닥칠 일을 생각했다.

운명. 그는 숨 막힐 듯 더운 쓰레기통 안에서 몸부림치며 퀴퀴하고 뜨거운 공기를 마시려 애썼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이 곤경 속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중대한 실수였다. 그는 동쪽을 정면으로 향한 나무 관 속에 스스로를 안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마치 분노한 불의 신처럼 하늘로 솟아올라, 그 아래 모든 것을 찾아 헤맸다.

그것이 소모되어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오 무렵, 나사로는 극심한 메스꺼움과 소름 끼치는 자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어부의 외침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사로야, 문을 열어라! 제발!"

그는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정신은 분열되었으며, 몸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마치 고문의 진자처럼, 끔찍한 사건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마치 시계처럼, 그의 정신이 망각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그의 몸은 더욱 극심한 고통으로 그를 다시 깨어나게 했다. 의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이 그의 필멸성을 조롱하듯 부풀어 오를 때, 라자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기도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의식을 잃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자비도, 어떤 자비도 내려오지 않았다. 계속되는 고통의 불길 외에는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다.

용서 없는 태양.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기도 전에 라자로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다. 성당 폐허의 긴 그림자가 마침내 쓰레기통 위로 드리워졌다. 황혼이 짙어지면서 구름이 붉은빛으로 물들자 상자 안의 scorching 공기가 누그러졌다. 라자로는 가장 깊은 황혼이 하늘에 드리워졌을 때야 어지러운 꿈에서 깨어났다. 수많은 별들의 시원한 빛과 초승달이 땅을 어루만졌다. 라자로는 흠뻑 젖은 삼베 자루 위에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는 웅웅거리는 소리로 어지러웠고, 그 소리는 이제 희미한 목소리들과 뒤섞인 듯했다. 마침내 귀에서 울리는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서 환각과 현실이 분리되었을 때, 그는 그 목소리들이 매우 격렬한 대화의 일부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옆으로 몸을 돌려 손을 들어 쓰레기통 뚜껑과 틀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뚜껑이 살짝 열리자 시원한 공기가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귀를 쫓긋 세우고 가만히 누워 계속되는 대화를 더 들으려 애썼다.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는데, 아마도 넓은 언덕 아래 묘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비록 불분명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듯했지만, 그것이 그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남자의 목소리가 간절히 애원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제발, 들어주세요! 잠시만 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별을 서두르세요." 루시파엘의 목소리처럼 부자연스러운 대답이 여러 여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목소리는 확연히 달랐다. 어쩌면 더 부드럽고 세련되면서도 엄격하고 단정한 느낌이었고, 마치 메아리처럼 거꾸로 울려 퍼지며 서서히 사라졌다.

라자루스는 긴장했고 숨이 가빠졌다. 만약 그 섬뜩한 대답이 그토록 깊고 남성적인 목소리로 섞여 있지 않다면, 루시파엘의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녀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말과 비슷했을 뿐이었다. 라자로는 뚜껑을 더 높이 들어 올리고 달빛이 비치는 묘지를 들여다보았다.

“혼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목소리가 애원하듯 물었다.

그러자 천사의 목소리가 “너무 오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과 잡초를 비추었다. 바람이 사그라들자 새로운 어둠과 고요가 묘지를 뒤덮었다.

라자로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보관함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아오르라고 재촉하는 듯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압도적인 호기심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슷하면서도 어조는 달랐다. 바로 그 순간, 라자로는 위험한 베니온 터널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금지된 터널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천사의 문자나 나라신 두루마리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과 자신의 기원, 그리고 엘조의 정령들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실, 그는 묘지와 그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수많은 존재들의 목소리를 쉽게 외면할 수 없었다. 더욱 특별한 지식이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소리 없이 비탈길을 내려갔다. 가장 짙은 그림자 속에만 그의 존재를 숨긴 채. 부서지기 쉬운 나뭇가지나 험거운 돌멩이 하나 밟지 않고, 그는 관리되지 않은 무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불규칙하고 은밀한 길을 따라 묘지 한가운데로, 그리고 그늘진 고대 참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덩굴 사이로 밝게 빛나는 신비로운 초록빛을 보았다. 완만한 언덕 뒤에서 나무들에 가까워지자, 그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간절히 호소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을 또렷이 들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사로는 귀를 쫓긋 세우고 엄숙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독 뒤편으로 올라갔다. "온 땅이 없어진다 해도 나는 너와 함께 남으리라."

사랑하는 당신. 아아, 이제 천사님께서 제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다 아시네요. 예전처럼 일상적으로 당신을 찾아볼 수는 없게 되었어요. 천사님께서 우리의 기념일을 알아채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영원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제 마음이 당신에게 변치 않는 한, 더욱 자주 당신을 찾아볼 테지만, 이전처럼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찾아볼 겁니다. 당신은 제게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당신. 제가 알고 싶은 유일한 천국이죠.

나사로는 잡초를 헤치고 무너진 묘비 가까이 다가가 웅크렸다. 돌무더기 너머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초록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고, 그의 눈동자는 가늘어졌다.

그는 마치 바늘구멍에 구멍이 뚫린 듯 이상한 광경을 응시했다. 그의 앞에는 유령 같은 남자의 형체가 두 개의 무덤 발치에 무릎을 꿇고 등을 그에게 돌린 채 서 있었다. 두 무덤은 잡초가 무성한 더 큰 돌담 안에 둘러싸여 있었다. 잡초 사이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두 묘비의 중앙에는 훨씬 높지만 더 좁고 화려하게 조각된 돌기둥이 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아마도 가문의 문장으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름이 세로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MEDICC I~\*. 라자루스는 묘비 그림자 속으로 몸을 기울였고, 유령은 일어서서 몸을 돌려 묘지를 훑어보았다.

그러자 나사로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 얼굴은 젊고 잘생긴 남자, 어쩌면 중년일지도 모르는 모습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각진 수염이 사각턱을 이루고 있었다. 유령은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풍성한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어깨에 걸친 옷자락은 높은 끈으로 묶은 부츠 위로 커튼처럼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라자루스는 신의 은총으로 강화된 지각력을 통해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더욱 깊은 곳,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흑요석 너머를 들여다 보았다.

유령과 정령, 떠도는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들이 출몰하는 신비롭고 영묘한 영역의 안개 속에서, 유령의 얼굴 구석구석은 초록빛으로 빛나는 형체만큼이나 반짝이고 투명하게 보였다.

나사로는 숲 속 공터로 나가서 나타난 환영에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말했다.

정령은 몸을 반쯤 돌리고는 잠시 멈춰 서서 아래를 응시하며 마치 예상치 못한 만남을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다 다시 몸을 돌려 나사로를 마주 보았다. 투명한 사람은 가슴을 만지며 물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자루스는 호감 가는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날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스펙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대체 어떤 악마냐?"

라자루스의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악마가 아니다. 나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다. 나는 라자루스 고구다."

유령은 턱을 쓰다듬으며 나사로를 유심히 살폈다. "자네는 그렇게 주장하는군."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난 자네에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네. 정말 아무것도."

나사로는 얼굴에서 미소를 완전히 잃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쉬고는 유령을 꾸짖었다. "당신 바로 너머, 당신을 통해 묘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니, 당신의 모습도 아주 작아 보이는군요."

남자는 입술을 꼭 다물고 엄숙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그 주장을 인정했다.

"당신은 영, 일종의 영혼인가요?" 라자로가 불화를 잠재우려 애쓰며 물었다.

그 환영은 두 팔을 벌리고 나타나 “당신이 이미 짐작했듯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유령은 팔을 내리고 차갑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옥과 결탁했다면, 당신의 최고 지도자들과 하수인들에게 이 영혼은 이미 다른 이의 것이 되어 곧 천국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호위.”

나사로는 굳건히 자신을 변호했다. “나는 지옥과 결탁하지도 않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려 하지도 않습니다.”

유령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은 천국과 결탁한 겁니까?” 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잠시 혼자 있으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도망칠까 봐 두려워서 왜 몰래 저를 감시하는 겁니까?” 유령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갑자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신의 종입니까? 저는 전에 이런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집 센 영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지만,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존재 말입니다.”

“저는 그저 나사로일 뿐이고,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조가 말했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저기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사로는 언덕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성당 폐허 속에서 그는 고백을 이어갔다. “그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묘비들 사이에서 빛을 보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악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유령의 얼굴에 새로운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쉬고 있었던 건가?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스펙터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하필 이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 겁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피곤해서 이탈리아로 여행 중이었거든요.”

미심쩍은 표정으로 유령은 대답했다. “나는 천국으로 가야 할 운명이다. 만약 내가 도망치려 하거나 지옥의 포로가 된다면, 나를 믿지 않는 호위자가 바로 이 순간 나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나는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령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무덤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면서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듯 어깨 너머로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돌아서서 떠나려 했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잘 가시오. 그러나 당신에게 이처럼 큰 신의 축복이 내려졌고, 당신의 부름이 이루어졌으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하늘에 바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나사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독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때 유령이 "축복이 내려졌느냐?" 하고 외쳤다.

그는 멈춰 서서 돌아서서 성령에게 물었다. "당신은 길을 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절대 안 돼!" 유령이 소리쳤다. 유령은 툭툭거리며 "끔찍한 일이군." 이라고 말했다.  
나사로는 잡초 덩굴에서 물러나 무덤을 피해 옆으로 비켜갔다. 그는 당황한 채 돌아와 유령에게 물었다. "어떻게 천국이 끔찍한 곳일 수 있습니까?"

유령은 무덤을 훑어본 후, 감정에 휩싸인 듯한 얼굴로 나사로에게 다가갔다. 나사로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살폈다. "나는 천국에 갔지만, 사랑하는 소피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지." 유령은 고개를 저었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야."

백 년 동안 나는 천사들의 의지와 기술과 싸워왔다. 아내의 마지막 기억이 내 안에 살아 있도록, 길 잃은 영혼으로 세상을 떠돌기 위해. 나는 이 천사와 함께 갈 생각이 없다. 그저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 하러 왔을 뿐이다.

그녀의 탄생일이죠. 천사는 매년 이곳에서 저를 찾아내고, 제 종교적인 귀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똑같은 만남을 반복합니다. 제가 오면 그녀가 저를 붙잡고, 천사가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경의를 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도망칩니다. 그녀가 저를 쫓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보다는 동정심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니 어쩌면 지금이라도 그녀가 저를 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재빨리 도망칠 겁니다." 텅 빈 남자는 시선을 돌려 응시했다.

그는 나무 사이를 헤치고, 천사 시종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 성당 유적을 향해 걸어갔다.

나사로는 유령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는 "안타깝군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성전 잔해를 바라보았다.

유령은 그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악의를 품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통을 당신에게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영혼은 숨을 가쁘게 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묘비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와 제 아내 소피아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령은 라자루스를 똑바로 쳐다본 후 짧게 인사를 건넸다. "저는 고(故) 그레고리 메디치 경입니다. 피렌체 출신이죠. 라자루스 고구 씨, 만나 뵈게 되어 기쁩니다."

라자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폐하, 영광은 오히려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탈리아에 오신 겁니까, 젊은이?" 메디치 가문의 유령은 망토를 펴리며 몸을 돌려 라자루스의 접힌 날개를 살펴보았다.

라자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한 사람을 찾아 그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례지만, 무슨 목적으로 그러시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라자로는 시선을 돌렸다.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메디치는 팔짱을 꼈다. 팔꿈치로 몸을 감싼 망토를 더욱 넓게 펼쳤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씩 웃더니 조용히 물었다. "감히 속삭일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밀이 있는가?"

죽은 자에게까지도?"

라자로는 그를 훑어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아닐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털어놓았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수도사를 찾고 있습니다."

메디치는 턱을 뒤로 젖히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게이트스톤이라고?" 라고 물었다.

라자로는 더듬거리며 적절한 설명을 생각해냈다. "이건 일종의 봉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문 이죠."

메디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서둘러 묘지를 훑어보며, 아마도 천사를 기다리는 자 같은 존재를 찾는 듯했다. 그러다가 라자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격렬하게 속삭였다. "다시 말해봐— 문이라고?"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마치 어머니나 괴물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는 듯 주위를 살살이 살폈다. 그러더니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지금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수도사를 찾아 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 말은 신성한 약속이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마지막 부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제 믿음이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메디치는 앞으로 뛰쳐나가 라자로의 어깨를 붙잡았다. "문이 무슨 문이냐? 말해 보아라!"

라자루스는 몸을 뒤로 젖혔지만, 유령의 차가운 손아귀는 여전히 그를 꽉 붙잡고 있었다. "영혼도 이곳을 통과할 수 있나요?"

라자루스는 유령이 셔츠 위에 짝 진 주먹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로 팔에 소름 끼치는 한기가 스며들어 마치 살과 피가 뼈 속까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영혼들이 거기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곳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메디치의 얼굴에 갑자기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는 어깨 너머로 다시 한번 경계심 가득한 눈길을 던지고는 더욱 짝 움켜쥐었다. "나를 저 문석으로 데려가야 해!"

"나는 다른 곳에 있는 수도사를 찾아야 합니다." 라자루스는 유령의 다소 거친 포옹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문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탈리아에서 당신의 수도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를 문석까지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라자로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넓은 언덕을 내려다보는 폐허를 응시했다. "그럼 기다리고 있는 천사는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이 그를 흔들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잠시만 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당장 도망쳐야 해!"

라자루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스펙터의 차가운 손아귀에서 몸을 빼냈다.

메디치는 갑자기 두 손을 풀었다. "라자로여, 용서하소서. 제 열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허리를 굽히고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의 여정에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으며, 당신에게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라자루스는 팔을 문질러 따뜻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하신다면."

메디치는 통명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간청했다. "그렇다면, 부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시다."

라자로는 한숨을 쉬며 "각하, 저는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폐허가 된 성전을 가리키며 "하지만 천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메디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제 천국은 문지기 석판 너머에 있을 뿐입니다." 유령은 밤하늘을 향해 손을 펼쳤다.

"자, 이제 출발할까요? 네?"

나사로와 메디치는 함께 참나무 숲을 떠나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래된 무덤 두 개와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한 명만 남았다.

~\*~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라자로와 메디치는 프랑스 남동부, 마시프 데 모레스의 구름 위를 날며 확고한 항로를 유지했다. 그들은 수도원 지도에서 라자로가 기억해 둔 생 라파엘과 생트로페라는 두 해안 도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그들은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뒤쫓는 천사나 날아다니는 돼지 악마가 있는지 경계하며 끊임없이 뒤를 살폈다. 생김새와 형태는 전혀 달랐지만, 그들의 경계심 가득한 행동은 어쩌면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바로 쫓기는 먹잇감으로서의 원초적인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 아침, 라자로는 마침내 바다에 도착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기에 그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해안선을 따라 생 막심 마을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지도를 참고하여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해안선을 살살이 뒤졌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는 마을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인적이 드문 내륙 만을 둘러싼 해변에 쓰러졌다. 그는 모래에 엎드려 헐떡이며 날개를 상처 입은 새처럼 펼쳤다. 메디치는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야? 피곤한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먹어야 해.” 나사로는 신음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아, 바로 저 사람이야!” 메디치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낸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치켜들고 흔들며 외쳤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라자로 주위를 서성이며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다. “이백 년 전에 죽었으니, 배고픔의 고통은 거의 잊고 있었군.” 그는 라자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당신은 먹어야 합니다.”

라자로는 몸을 굴러 앉은 자세를 취했고, 날개는 나른하게 펼쳐졌다. 그는 얼굴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고 고개를 들어 해변 만 가장자리의 돌투성이 능선을 살피고 있는 메디치를 발견했다. 반투명한 남자는 능선 꼭대기를 살살이 살피며 덩불 너머를 응시하는 듯했다. 라자로는 그의 넓고 고정된 시선을 지켜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가장 먼 곳을 탐색하는 듯했고, 어쩌면 영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속삭였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젊은이. 내가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소." 라자로가 입을 열어 말을 꺼내기 도 전에, 메디치의 영롱한 형체는 사라졌다.

메디치는 라자로를 훨씬 뒤에 남겨두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순식간에 만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곧 풀이 무성한 능선에 착지했고, 조심스럽게 잡초를 헤치고 나아가 공터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꾼의 시선으로 바라 보았다. 토끼는 마치 맹금류를 감지한 듯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놀란 토끼는 안전해 보이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메디치가 덩불 속에서 토끼를 덮에 걸어 목을 부러뜨렸을 때, 유령은 초록빛 섬광과 함께 능선을 살살이 뒤져 가시덤불 한 묶음을 모아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왔다.

라자로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메디치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자리를 응시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파도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능선을 훑어보았다. 그는 손을 모아 큰 소리로 "폐하?"라고 부르기 전에 만에 다다랐다. 그는 귀를 쫓긋 세우고 멀리 있는 덩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딱정벌레가 딸깍거리는 소리나 동지에서 꼼지락거리는 새 소리뿐이었다. "메디치 경?" 이상하고도 갑작스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시선을 뒤로 돌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돌아섰고, 뒤로 뛰어올라 모래 위에 쓰러졌다. 그의 앞에는 메디치가 장작 한 아름과 축 늘어진 토끼 한 마리를 들고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메디치는 나사로에게 다가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 토끼 한 마리면 당신처럼 식욕이 왕성한 사람에게 딱 좋을 겁니다." 그는 토끼를 들어 올려 무게를 재보려는 듯 살살 흔들며 보이듯 덧붙였다. "훌륭한 식사죠?"

나사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당신은 거기에 계셨다가, 또 안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거기에 계셨군요."

나타났다." 그는 모래를 털어내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되돌리고 다시 만들어 낸 겁니까?"

메디치는 토끼를 내려놓고 꺾꺾 웃으며 예언처럼 대답했다. "죽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산 자가 짐작하듯이, 나는 불을 피울 능력이 없소." 유령은 장작과 토끼를 해변에 던지고는 라자루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손짓했다. 라자루스는 순순히 따랐고, 유령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조의 눈 깜짝할 사이 에 유령은 장작을 활활 타오르는 불로 만들고, 토끼의 가죽을 벗기고, 손질한 후, 라자루스에게 꼬챙이에 꽂힌 토끼를 건넸다. "자, 어서 드시오." 그는 꼬챙이에 꽂힌 토끼를 흔들며 말했다. "설마 내가 구워주기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 겠죠?"

라자루스는 메디치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의 손에서 꼬챙이를 빼앗았다. 메디치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해변에 앉았다. 그는 가만히 서 있는 라자로를 올려다보며 불을 가리키는 재치 있게 속삭였다. "라자로, 이제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아야 해 . 불이 그것을 준비시켜 줄 거야."

라자루스는 자신도 모르게 메디치를 뻘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투덜거리며 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의 능력을 변호하듯 말했다. "저는 토끼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토끼를 불 위로 휘두르고 메디치를 바라보았다. 메디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자 라자루스는 유령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메디치는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는 라자로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죽음은 삶 의 또 다른 면모 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함이 그 여러 특징 중 하나일 테니까요." 메디치는 라자로가 자신의 말을 곱씹어볼 시간을 준 후, 따뜻한 미소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라자로의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구워지고 있는 토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가능하시다면, 이 요리의 비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토끼를 구우신 겁니까?"

유령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다가 망토 아래를 가리키며 나사로에게 속삭였다.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마법의 비결은 내 망토 아래에 토끼를 숨겨 놓았다는 거지."

나사로는 유령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당신의 망토 너머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토끼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메디치는 코웃음을 치며 웃으면서 " 농담입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라고 인정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나사로에게 진실을 설명했다. "그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 손을 내밀고 말했다. "그저 당신 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토끼 한 마리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분명히 어떤 마법도 아니었어요."

마법이었어;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나사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꾸짖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토끼를 들고 있더군요. 당신은 무슨 마법이나 주술을 써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토끼를 불러낸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젊은이." 메디치는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고 다른 팔은 새로 세운 무릎 위에 얹으며 대답했다. "제가 마법과 기적에 대해 모아온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 모래를 응시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더욱 엄숙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마법과 주술에 대한 수많은 비난을 목격했고, 축복과 기적에 대한 주장은 더욱 많이 접했습니다. 연금술과 인체 감식술을 행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발견과 예리한 관찰, 그리고 기록된 진실을 통해 그러한 비난과 주장을 반박 해야 할 의무와 기회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곧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신념과 확신을 굳게 지켰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가벼운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어떤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상태와 상관없이 똑같이 세심하고 차별 없는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메디치는 라자루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후 물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환자들의 유족들이 왜 나를 중대한 과실이나 살인죄로 고발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내 환자가 뜻밖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마법을 부렸다고 비난했다. 아니면 제 치료를 완전히 무시하고 치료가 신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까?

라자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돌볼 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저는 당신 이 토끼를 허공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기적이나 신의 개입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끼를 허공에서 쉽게 꺼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속임수를 위해 개입하시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 남은 것은 마법뿐인데, 당신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죠.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메디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네요.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

우리는 그저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할 준비를 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평범 하게 보이도록 쉽게 설명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 특히 신성이나 마법, 주술, 심지어는 마술 같은 것을 핑계로 말이죠.” 그는 잠시 라자로의 무표정한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매우 흔하지만 서로 거의 연관되지 않는 사건들의 예외적인 조합에 대한 더 복잡한 설명을 목살하려는 것이죠 .”

나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교님.” 이라고 말하며 몸을 앞으로 숙여 토끼를 불 위에 굴렸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하거나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머리카락을 만드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메디치는 “당신에게는 그저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그것을 먼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가져왔다고요? 멀리서요?” 라자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곧바로 나타나셨잖아요. 뭔가를 가져올 시간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랬나?" 메디치는 껄껄 웃었다. " 죽은 자에게 순간이란 무엇인가, 젊은이?"

나사로가 물었다. "주님, 여쭙봐도 될까요? 어쩌서 저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할까 봐 그러십니까?"  
답변을 숨기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내가 그들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군.” 유령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순간은 우리 둘 다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고, 분명 조심스러운 교류가 필요할 만큼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 죽은 자와 날아다니는 자가 서로를 궁금해하다니 말이지 ?” 그는 칼을 뽑았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모로 신비로운 우리 여정은 아주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여행 동반자 조합을 만들어냈죠.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젊은이?"

선생님?"

잠시 동안 파도가 해안선을 적시며 그 흔적을 남겼다. 그러자 라자로가 물었다. "주님, 두 세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그건 그렇고, 젊은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그레고리'나 '메디치'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손에 든 토끼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 더 이상 기사가 아니니 굳이 제게 직함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저는 그저 나사로일 뿐입니다.”

"당신은 기사였습니까?"

라자로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메디치에게 캐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정말 영적인 존재라면, 왜 나는 당신과 같은 존재를 더 많이 보지 못했습니까?"

"오, 많죠. 하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 내 숨어있는 저까지 알아챌까 봐 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만의 방식으로 은밀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메디치 가문 내부에서도 새로운 의심이 싹텄고, 그는 라자루스를 추궁했다. "나는 그것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상하군, 자네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채 나를 볼 수 있으면서도, 나와 같은 다른 영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어찌 된 일인가?

라자로는 인정했다. "저도 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석에서 나와 성당 꼭대기에 모여든 악령들이었습니다." 라자로는 메디치를 똑바로 바라보며 더 캐물었다. "혹시 당신은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모습, 좀 더 겸손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한 존재는 아닙니까?"

유령은 얼굴을 굳힌 채 일어섰고, 무표정한 엘조 역시 서 있었다. 그들은 불빛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진실과 거짓의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 순간, 오직 바다만이 신음하고, 바람만이 울부짖고, 타오르는 불씨가 반딧불이처럼 흩어졌다. 만약 그들의 무수한 생각들이 타오르고 굉음을 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풍경과 소리를 삼켜버릴 만큼 거대한 폭풍, 그 어떤 폭풍에도 뒤지지 않는 강풍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령은 거의 형체가 없었기에 라자루스는 메디치를 쉽게 탐색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엘조는 완전히 부자연스러웠기에 메디치 역시 라자루스를 쉽게 감지할 수 없었다. 둘 다 그들 사이에 감도는 혼란의 공간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그 공간의 존재를 감지했다.

부인할 수 없이 현실적이었다. 마치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물결치는 혼돈의 구름 같았다. 그곳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무한한 의심이라는 최고의 지적 상태만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각자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는 듯했다.

메디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악마의 영혼이 아닙니다. 악마는 나처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당신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 단지 하늘을 나는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놀랍군요." 메디치는 턱수염을 쓰다듬 으며 손가락을 흔들고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백 년 동안 나는 온 세상을 뒤져 그런 문을 찾았소. 그러는 동안,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언제나 누군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소. 하지만 내가 무덤가에 멍하니 서 있을 때,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왔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소. 혹시 당신은 기묘한 모습과 가식적인 태도를 한,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악마의 알려지지 않은 화신이 아닌가?"

"내가 악마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는 문물을 닫아줄 수도사를 찾고 있는 거야." 라자로가 말했다. "지옥을 찾는 건 바로 너야."

"나는 지옥을 찾지 않는다. 나는 나의 소피아를 찾는다."

"그럼 그녀는 지옥에 있는 건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메디치가 반박했다. "하지만 당신의 수도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평범한 인간 수도사가 어떻게 지옥에 대해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갖고 속속들이 알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문의 작동 방식은 분명히 매우 복잡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자로가 인정했다. “저는 그의 행적이나 수단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이름과 거쳐만 알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 왜 굳이 그 수도사를 찾아야 합니까? 그가 당신의 이 문석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문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자로가 꾸짖었다. “저는 그저 수도사를 모셔오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맹세했고, 이제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이 여정에서 나에게 악의가 닥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수도사와 그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알 필요는 없다.”

메디치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 괜찮은 일이지. 아무리 특별해 보일지라도, 그저 선행을 베푼 것뿐이니까.”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당신에게 악의도 없다. 내가 당신에게 토끼를 잡아다 주지 않았나? 내가 당신에게 좋은 말뚝이 되어주지 않았나?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존경을 표하지 않았나?”

메디치의 질문은 나사로에게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가 값진 보석을 선물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메디치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로 답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종종 선행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풀려난 악을 묶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치는 씩씩거리며 힘없이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외쳤다. “하지만 자네는 나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 내가 보기엔 자네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군. 지옥의 입구로 말야!” 그는 팔짱을 꼈다. “라자루스, 대답해 보시오. 자네가 내가 문석에서 온 악령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왜 자네의 여정에 동행하려 하겠소? 내가 정말 그런 문에서 왔다면, 그 위치를 이미 알고 있지 않겠소? 내가 굳이 이탈리아로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자네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겠소?”

라자루스는 비슷한 추측으로 반박했다. “당신은 어쩌면 제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탈리아에 함께 가자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피아 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몰래 저와 동행하여 그 수도사를 직접 찾아내고, 그가 문석을 닫기 전에 죽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메디치는 허리에 손을 얹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악마와 한패가 아니다, 라자로.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공동묘지에 간 것도 아니다. 게다가,

당신이 내게 은밀히 다가온 바로 그 순간, 천사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했어요.

라자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메디치 가문이시여, 저는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당신의 천사의 목소리가 저를 당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메디치가 반박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팔을 내렸다.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서로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고 의심하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악의가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당신의 의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지라도, 결국 제가 소피아를 찾으려면 당신과 동행 하고 필요 하다면 수도사를 찾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환영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신의 의도가 저만큼 진실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자로는 메디치의 호의적인 말과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주시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좋은 일을 해 주셨으니, 제가 천사 앞에서 당신을 만났고, 토끼도 찾아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그들은 모닥불 옆에 앉아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한동안 그들은 번갈아 가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해변으로 밀려와 겹겹이 쌓인 거품선만 남기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라자로는 이렇게 말했다. "메디치 씨, 부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동안 인간의 영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제 의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메디치가 대답했다. "제 평생 동안, 죽음조차도 나는 하늘을 나는 사람과 같은 존재를 만난 적이 없다. 더욱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산 자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당신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사르가 물었다.

"글쎄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녀노소의 수만큼이나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전쟁터의 들판을 멍하니 헤매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도 있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영혼 한두 개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천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서둘러 도망쳐야 합니다."

"그들은 영혼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천국이나 지옥이겠지. 여기 말고 다른 어딘가일 거야. 내가 알기로는 영혼이 지상을 떠도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을 허용하는 걸까요?"

스펙터는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허락한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그들이 나를 잡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는 껄껄 웃으며 손을 성직자 옷 주머니에 넣었다. "오, 그들은 내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가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나사로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이 도망쳤던 무덤 속의 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당신이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아즈라엘?" 메디치는 웃었다. "정말 추적을 잘하는 여자지. 소피아를 정기적으로 찾아갈 때 외에도 아즈라엘이 몇 번이나 날 따라잡았어. 그때마다 난 천국에 갈 준비가 됐다고 말하며 그녀의 주의를 돌린 다음 따돌리지. 그녀는 날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 아마도 내 처지를 안쓰럽게 여기는 걸지도 몰라. 아자젤은 내가 어디 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아. 아자젤은 내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 날 불쌍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아자젤을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군."

"아자젤?" 라자로가 물었다.

메디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한 명이요."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겠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선한 영혼이 천국을 떠나겠소?" 그는 토끼 인형을 돌리며 물었다. "만약 아즈라엘이 자네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다면, 자네는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처럼 그녀와 함께 가겠소? 소피아를 데리러 말이오?"

"아니, 라자로야. 아즈라엘은 선한 영혼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자젤 이라고 자칭하는 다른 천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나는 지난 수년간 그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뿐인데, 그때 간신히 그 굶주린 짐승에게서 도망쳤을 뿐이야."

"어찌하여 그와 함께 지옥에 가지 않고 소피아를 데리러 갔습니까?"

"아자젤을 따라간다고요?" 메디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를 따라갈 리가 없죠. 그는 영혼을 덧에 걸리게 하고 발가벗겨 강간하는데,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토끼와 다를 바 없소." 그는 그들을 붙잡아 도망칠 수 없게 완전히 삼켜 버립니다. 아즈라엘은 그 후 아자젤에 대해 경고하며, 그는 사랑스럽게 포옹했던 천사 크로노스의 사생아라고 말했습니다.

아즈라엘은 오래전에 내가 천국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아자젤이 결국 나를 찾아내 잡아먹고, 그 안에 가두어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령은 움찔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라자루스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가 이 땅을 떠도는 동안, 아자젤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나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가 나를 잡는다면, 나는 내 힘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은밀히 지옥으로 가는 더 적합한 입구를 찾아왔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입구 말이다.

“지옥에서 소피아를 훔쳐 오겠다는 말인가?” 라자로가 물었다.

메디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 혹은 정말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녀도 당신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메디치는 바다 수평선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만약 그녀가 이 땅에 살아 있었다면, 내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찾아 헤맨 지난 200년 동안 그녀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즈라엘은 그녀가 천국에 없다는 것을 거의 자백했다. 그러니 나는 그녀가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천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메디치는 한숨을 쉬며 해변을 훑듯 바라본 후 “글쎄, 아즈라엘이 말한 건 아니었어.” 라고 인정했다.

그가 한 말이 내 생각을 바꾸게 했다. '그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라자로는 귀를 쫓긋 세웠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사로를 향해 비난하는 듯한 손가락질을 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아즈라엘에게 내 소피아가 천국에 있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내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지옥에 있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똑같은 말만 한다.”

“그럼 이제 당신은 그녀가 지옥에 있다고 믿는 겁니까?” 라자로는 완전히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천사가 그녀의 행방에 대해 똑같이 대답했다면, 왜 그녀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만 있다고 믿는 겁니까?”

라자루스는 메디치가 일어서서 등을 돌리고 바다를 응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잔잔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유령의 망토는 미동도 없이 펄럭였다. 마침내 유령은 고개를 살짝 돌려 모래사장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인 후, 완전히 몸을 돌려 라자루스를 마주 보았다. “라자루스, 아즈라엘이 내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만으로는 내 소피아가 지옥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소. 자네가 그녀가 거의 확실히 지옥에 있다는 내 말에 동의하기까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겠소.” 유령은 불 주위를 돌다가 라자루스 옆에 무릎을 꿇고 가시덤불을 불길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나사로는 유령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초록빛 눈동자는 마치 불빛에 사로잡힌 듯 아득히 멀리서 영원을 응시하는 듯했다.

메디치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저는 직업적으로 의사이기도 했지만 연금술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가장 흔한 생리적 현상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이국적인 조제법과 환각제를 발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저의 도구와 방법은 점점 더 독창적이 되었고, 기존의 의학 규범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 그래서 나는 두려움 때문에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단이나 마법 혐의로 기소될 일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불멸을 약속할지도 모르는 독특하고 정확한 오일, 추출물, 금속, 그리고 혈액의 조합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영약(엘릭서)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게 존재합니까?” 라자로가 물었다.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는 상관 없지만, 살아생전엔 그렇게 믿었지." 그는 한숨을 쉬며 라자로에게 진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 외에 내 여정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 바로 내 믿음직한 조연자이자 동반자였던 소피아였지."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중하게 시선을 구워지고 있는 토끼에게로 떨쳤다.

유령은 불길 속으로 손을 뻗어 불타오르는 석탄 조각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고 말을 이었다. "정말 거의 다 왔었는데. 나는 내가 불로장생의 묘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 그는 석탄을 다시 불길 속으로 던져 넣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혼합물에 활력을 불어넣을 단 하나의 재료를 찾아 수많은 기이하고 이국적인 땅을 탐험하게 되었지." 유령은 시선을 돌려 파도를 바라보다가 다시 라자루스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분명히 어두워져 있었다.

“소피아에게 이번이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거라고 약속했었지. 내가 승선했던 상선은 출항 직후 거센 폭풍을 만났어. 강풍에 배가 거의 침몰할 뻔했고, 예정된 첫 번째 항구를 훨씬 지나쳐 버렸지. 선장은 방향을 바꿔 다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계속 항해를 이어갔고, 우리는 무사히 남은 여정을 마쳤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가 폭풍에 침몰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폭풍에 뜬 배 조각들이 우리가 지나쳤던 항구 근처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그 소문은 사실로 굳어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소피아에게 전해졌어.” 메디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라자루스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열정적인 여자였어. 어리석기까지 했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두 사람은 시선을 토끼와 토끼를 집어삼킨 불길로 돌렸다.

"자, 이제 알겠지?"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믿고, 너도 지옥문을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유일한 천국을 되찾기를 바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꽃은 바닷바람에 흔들렸고, 라자로는 희미한 바다 수평선을 응시했다.

“토끼를 번제물로 준비하십니까?” 메디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검게 그을린 토끼.

“아!” 나사로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불타는 막대기 위에 토끼를 높이 들어 올려 구해냈다. 산들바람이 불꽃을 끄고 토끼를 식혔다. 그는 메디치에게로 돌아섰다. "실례지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유령은 껄껄 웃으며 불길을 가리켰고, 그의 흔들림 없는 손은 불길 속으로 파고들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 직업의 핵심 도구였던, 악명 높은 프로메테우스의 선물, 불 때문에, 나는 잠자던 중 죽었다."

"화형당하셨어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약제와 추출물 통에서 나온 연기였습니다. 잘못 놓은 등잔에 불이 붙은 것이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재료들에서 나온 치명적인 연기였습니다.” 메디치는 껄껄 웃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00년이 지난 지금에 있는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덧붙였다. “어쩌면 우연히, 나는 결국 불멸의 묘약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묘약이 나를 죽여야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뿐입니다.”

라자루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가 씩씩하게 웃었다. 그는 재빨리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메디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라자로.” 메디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안심시켰다. “배불리 먹고 고통을 잊으렴.” 유령은 불에서 물러나며 라자로에게 말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 이름을 불러 우리 위치를 알아봐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라자루스는 유령이 해안선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령은 신중한 걸음으로 별들의 배치를 살폈다. 그때 메디치의 얼굴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사라졌다.

굶주린 나사로는 까마귀처럼 검은 하늘 아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마침내, 공중에 떠다니는 불씨는 꺼져가는 불씨에서 떼 지어 나오는 반딧불이처럼 보였다. 나사로는 해변을 서성이며 모래 위에 점점 좁아지는 원형 발자국을 남기면서 유령의 흔적을 찾아 하늘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곧 바다 쪽, 동쪽 지평선으로 향했고, 첫 번째를 표시하는 가느다란 붉은 선에 고정되었다.

새벽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주위를 돌며 불 주위를 반대 방향으로 서성거렸고, 그의 손은...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시선을 동쪽으로 고정했다.

그의 어깨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분이 어때?"

라자루스는 펄쩍 뛰다가 모래사장으로 쓰러졌다. 그는 다가오는 유령의 희미한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가 노려보는 동안 메디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나사로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라자루스는 숨을 고르며 투덜거렸다. "그래, 그러시겠다." 그는 스펙터호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면서, 빛나는 지평선을 잠깐 훑고 보고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 모래를 뿌리며 말했다. "메디치, 우리는 서둘러 떠나야 해."

메디치는 라자로 앞에 멈춰 서서 해안선을 가리켰다. "생 막심 마을을 찾았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यो. 자네는 다재다능하군. 게다가 이제는 방향 감각까지 탁월하군." 유령은 팔짱을 끼고 덧붙였다. "정말 놀랍소. 자네는 정말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소?"

"메디치 가문!" 라자로가 바다 위 희미한 빛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며 끼어들었다. "저 빛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메디치 가문! 당장 피난처를 찾아야 해!"

"피난처요? 바다로부터의 피난처요?"

나사로는 "태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세히 설명했다. "저는 태양으로 인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 메디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상대로, 비범한 능력에는 비범한 약점이 따르기 마련이지." 그는 몸을 돌려 해변 만에서 내륙 쪽을 가리켰다. "저기에 숲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좀 더 어두운 곳을 찾고 있어. 동굴 같은 곳 말이야."

메디치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동굴은 보지 못했소." 그는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자네는 날이 밝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지 못할 걸세." 그는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라면 쉬울 걸세. 바다 밑에도, 땅속에도, 심지어는 숨길 수도 있지 않나."

나무 안에 있지만, 당신은 살아가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자로는 날개를 살짝 기울이며 천천히 선회하며 말했다.

"아! 적당한 곳을 알고 있다!" 메디치가 외치며 남쪽 해안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위 위에 난파선이 있는데, 선체는 아직 단단히 밀봉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말이 사실인가요?"

"존경받는 신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메디치는 강조했다. "소피아를 찾으려면 당신이 무사해야 합니다. 배는 봉쇄되었으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즉시 요!"

라자로는 지평선을 살폈다. "땅과 바다를 가르며 낮고 빠르게 날아야 해." 그는 몸을 돌렸다. 메디치에게 손을 흔들며 하늘을 향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꺼져가는 불과 새까맣게 탄 토끼 머리를 버리고 하늘로 살금살금 올라갔다. 버려진 잔해들은 마치 멍하니 하늘로 솟아 오르는 두 기묘한 쌍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마지막이자 심오한 장면을 연출하려는 듯, 그들은 하늘로 향하는 기묘한 쌍을 섬뜩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완전히 부재하는 관객 앞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공연,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검고 짐승 같으며 완전히 버려진, 크고 텅 빈 눈구멍으로 위를 응시하며 영원히 정지된 채 누워 있는 모습.

[ 제19장 끝 ]



이 문학 작품은 오직 헌정 의 의미 로 창작 되었습니다 .

##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